

도시 주부의 자아긍정감과 가정생활만족도

Family Life Satisfaction and Positive Self-concept For Urban housewives

영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최외선
영남전문대학 가정과
부교수 손현숙

Department of Home Management, Yeungnam University

Professor : Choi, Wae Sun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Yeungnam Junior College

Associate Professor : Son, Hyoun Sook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 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determine the relative importance of specific family environmental variables and positive self-concept of psychological variables in explaining family life satisfaction. Data were collected from 423 housewives in Daegu City.

Multivariate regression and factor analysis and path analysis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The results of this study partially supported the hypothesis that positive self-concept of psychological factors would be more closely associated with family life satisfaction than would family environmental factors.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1. Urban housewives' positive self-concept and family life satisfaction were relatively high.
2. Among family environment variables, health, wives' education level, husband's satisfaction with job significantly influence on positive self-concept.
3. The variables which significantly affect family life satisfaction are husband's

satisfaction with job, monthly family income, health.

4. From the path analysis, it found that positive self-concept has the most great influence on family life satisfaction.

I. 서 론

가족은 가정이라는 범주 속에서 생존과 생활을 위한 정신적 물질적 충족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김윤경 1983)

그러므로 가정에서 가족의 욕구나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 충족은 주로 가정생활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그 결과는 가정생활만족도로 나타난다.

전반적인 영역의 생활만족 및 생활의 질에 가정생활만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보고(Andrews, 1974; Campbell, 1976; Bharadwaj, 1977; Hafstrom 1986)를 고려해 볼때 가정생활만족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주부는 가정생활의 일차적인 책임을 맡고 있으며 예나 지금이나 가정의 주체가 된다. 주부의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은 다른 가족원에게도 안정과 행복감으로 전달되며 주부가 가정생활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주부자신의 정신건강과 자아존중 및 부부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녀들의 건전한 인성 발달 사회화 나아가 자녀의 앞으로의 결혼생활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고 마침내 사회문제까지 야기하게 된다.

특히 자녀가 학동기인 가정의 주부는 중년기 특징인 신체적, 사회적 노화현상을 겪을 뿐 아니라(김명자 1989) 여러 복잡한 문제에 부딪치게 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정생활만족도는 낮아진다는 것은 다소 불가피할지도 모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동기 자녀를 둔 30대, 40대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하고 이전 연구에서 가정생활만족도의 변인으로 많이 사용한 가족환경변인과 점차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임정빈 1990, Jeries 1979) 사회심리적 변인중 개인 내적 변인으로 자아긍정감을

을 관련변인으로 하여 주부의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상대적 중요변인을 찾아 그 변인의 중요성을 재인식함으로써 주부의 가정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 주부의 자아긍정감, 가정생활만족도의 실태를 알아본다.

둘째, 가족환경변인이 자아긍정감 및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셋째, 자아긍정감이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넷째, 가족환경변인, 자아긍정감 및 가정생활만족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인을 모색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정생활만족의 개념

Campbell(1976)은 만족이란 목표나 욕구의 달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며 행복이 감정에 의한 경험을 의미한다면 만족은 판단되거나 인지되어진 경험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즉 만족감이란 어떤 표준에 의해 삶의 경험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이는 개인이 희망하는 상황인 열망과 개인이 향유하는 상황인 성취 사이의 격차에 의해 좌우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명자(1982)는 생활만족도란 생활 전반에 대한 행복과 만족의 주관적 감정이며 일종의 태도라고 정의하고, 이것은 생활의 실제와 기대간의 일치에서 오는 개인의 관점에 따른 주관적, 개인적 현상으로 심리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에 의해 크게 영향받는다고 하였다.

가정생활만족의 개념은 이러한 만족과 생활만족 개념에서 도출될 수 있다.

임정빈(1988)은 가정생활만족이란 가정생활 전반에 대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충족된 느낌 혹은 기대와 실제로 받는 보상 간의 일치정도에서 느끼는 충족감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개념을 기본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의 가정생활만족이란 가정생활 전반에 대한 실제와 기대 간의 일치에서 오는 행복과 만족의 주관적 감정이며 태도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가정생활 만족의 요인으로는 Deacon과 Firebaugh(1981)에 의하여 조작된 가정관리체계 중 첫째, 사회심리적 하위체계(psychosocial subsystem)인 생활표준, 동료감, 자녀관계, 시가관계와 둘째, 관리적 하위체계(managerial subsystem)인 경제문제, 가사노동, 의사소통, 전반적 만족을 기준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요인분석하여 가정생활 만족요인을 남편에 대한 만족, 자녀에 대한 만족, 시댁에 대한 만족, 경제문제에 대한 만족, 가사노동에 대한 만족, 전반적 만족으로 하여 하위 영역을 구성하였다. 가끔 혼용하여 쓰여지고 있는 결혼만족의 구성요인이 주로 가정생활의 사회심리적 하위체계에 중점을 둔다면 가정생활 만족의 요인은 관리적 하위체계까지 포함된 것이라 하겠다.

2. 가족환경변인과 가정생활만족

1) 연령

Hayes와 Stinnett(1971), Spurrier(1973), Ball(1984), 이정우(1980), 이기영(1984)의 연구에서는 주부의 연령과 가정생활 만족도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하였고 임정빈(1988), 이종숙(1989)은 주부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가정생활 만족도가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2) 결혼지속년수

결혼지속년수는 연령과 관련이 있으며 Hayes와 Stinnett(1971)와 임정빈(1988), 이종숙(1989)의 연구에서 결혼지속년수는 가정생활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였다.

Rollins와 Feldman(1970), Schram(1979) 등은 결혼 초에 만족도가 가장 높고 첫자녀 출산 후에는 만족

도가 낮다고 하였다.

정충량과 이효재(1970)는 결혼지속년수가 6년 이하인 가정의 경우에 만족도가 가장 높고, 그 이후 년수가 경과함에 따라 만족도는 감소함을 보인다고 했다.

Lewis와 Spanier(1980)와 Elizabeth와 Carol(1988)도 가정생활주기 초기 단계 동안 만족도가 높다가 중반기 단계에서 만족도가 떨어지거나 좀 더 안정된 상태를 보이다가 후반기에 다시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김은숙(1983)은 자녀가 없는 신혼기에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성장기의 10대 자녀를 가지는 시기에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 시기는 자녀가 10대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부 자신이 중년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보고했다.

3) 자녀수

Hayes와 Stinnett(1971), 이정우(1980), 이기영(1984), 이종숙(1989) 등은 자녀수는 가정생활 만족도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고 Spurrier(1973)는 자녀수가 증가함에 따라 주부의 가정관리 만족도는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Glenn(1979), Spanier(1980), Glenn(1982), 박찬미(1985), 임정빈(1988), 조미환(1990)은 자녀가 많을수록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증가되어 만족도가 감소하게 된다고 하였다.

4) 부인학력

Scanzoni(1975), Jackson(1978) 등은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정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Spurrier(1973), 이정우(1980), 이기영(1984), 임정빈(1988), 이종숙(1989)도 주부의 학력은 가정생활 만족도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5) 남편학력 및 직업

박태은(1983), Scanzoni(1975), 이미숙(1985)은 남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주부의 가정생활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6) 월평균 소득

월평균 소득은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Hayes와 Stinnett(1971), Hafstrom와 Dunsing(1973), Campbell(1976), 이정우(1980), 이옥진(1982), 박태은(1983), 이기영(1984), 이정빈(1988), 이종숙(1989), 조미환(1990) 등의 연구에서도 월평균 소득이 높은 주부들이 가정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가정생활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본다.

7) 부인직업유무

이정우(1980), 임정빈(1988), 이종숙(1989) 등은 취업주부가 전업주부보다 가정생활만족도가 낮다고 보고하였다.

최규련(1984)은 부인의 직업유무보다는 직업종류, 취업동기, 남편의 지지여부가 가정생활만족도에 더욱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정혜정(1985)은 취업주부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고 자녀의 연령이 많고 자녀수가 적을수록, 가사조력자를 두고 있을 때 만족도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0대, 40대의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령, 결혼지속년수, 자녀수는 자연히 통제된 상태에서 가정생활만족에 상당히 중요한 변인으로 인정되어온 월평균 소득, 부인학력, 남편학력, 부인직업유무를 중심으로 건강상태, 남편의 직업만족도 등을 첨가하여 가족환경변인으로 가정하였다.

3. 자아긍정감의 개념

자아긍정감은 자아개념에서 도출될 수 있으며 Rogers(1951)는 자아개념을 개인이 행동해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자기관, 이상 등이 역동적으로 종합된 조직체라고 했으며, Combs와 Snygg(1959)는 자아개념은 자기에 대한 지각이며 개체가 자신을 외부적인 변화에 대항하면서 자신을 주관있게 유지하고자 하는 행동특성이라고 정의하였다. Gecord와 Bae-

kman(1964)은 다른 각도에서 자아개념을 분석하고 있다. 즉 각 개인은 자기자신에 대한 감정과 인지를 갖고 있는 바 이것을 자아 또는 자아개념이라고 말하고 개인이 자기 자신을 보는 태도는 인지적, 정적, 행동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Hall와 Lindzey(1970)는 자아개념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째로 자아는 유기체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달되고 둘째, 자아는 타인의 가치관을 안으로 투사시키거나 왜곡된 모습으로 지각되기도 한다 셋째, 자아는 항상성을 구사한다. 넷째, 유기체는 자아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다섯째, 자아의 구조와 일치하지 않은 경험은 위협으로 지각된다. 여섯째, 자아는 성취나 학습의 결과로 변화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자아개념은 결국 개체가 생활하고 성장하는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특히 성장초기의 가정의 문화풍토, 부모의 양육태도, 가치관, 기대수준 등이 정신적 발달 및 자아개념 형성에 보다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자아긍정감의 정의로는 자신의 능력과 행위에 대한 만족감을 말하며 또한 자기자신을 좋은 사람이란 감정과 가치있는 사람이라는 감정을 말한다.(Sears 1970)

4. 자아긍정감과 가정생활만족

자아긍정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정확히 평가하고 적응력이 좋으며 능동적이고 현실과 이상의 조화를 이룬다. 반면에 부정적 자아개념을 가진 사람은 적응이 어렵고 열등감, 불확실감을 가지며 정서적 손상이 크고 자신감이 없어 목표설정이 지나치게 낮거나 비현실적이다.(조성욱 1987)

Glasser(1966)도 배우자의 자아개념과 그 사람의 배우자가 자신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는 믿음이 행복에 전적으로 기여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하였고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상호적인 것 이라기 보다는 자기 내부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Hayes와 Stinnett(1971)는 자아개념이 높은 사람이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Goldstein과 Rosenbaum(1985)은 낮은 자존감은 아

내폭력의 요인으로 보고하면서 만족스런 가정생활을 하는 남편보다 폭력을 쓰는 남편이 유의하게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으므로 자아긍정감은 가정생활만족도의 요인이 됨을 시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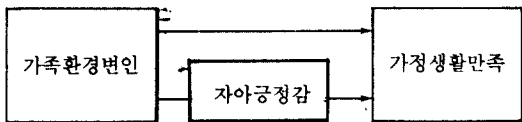
Macke(1979)는 취업주부와 일반주부의 비교에서 취업주부가 자아긍정감이 높고 남편의 수입이나 직업적 명성은 주부의 자아긍정감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결혼의 성공여부를 거쳐서 자아긍정감의 간접적 영향도 주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도 가정생활 만족에 영향을 미치리라 사료되는 개인 내적 변인 중 자아긍정감을 중요 변인으로 인정하여 조사해 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의 구성 및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자아긍정감, 가정생활만족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가족환경변인, 자아긍정감이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그림 1)



〈그림 1〉 연구 모형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1) 도시 주부의 자아긍정감, 가정생활만족도의 일반적 영향은 어떠한가? --
- 2) 가족환경변인이 자아긍정감,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3) 자아긍정감이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 4) 가족환경변인과 자아긍정감이 가정생활만족도에 인과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대구시내에 거주하는 국민학생 자녀가 있는 주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2차의 예비조사를 거친 후 신뢰도 검증 결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문항은 수정하였으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문항을 추가하여 재구성한 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1991년 7월 6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되었다. 표본은 대구직할시 서구, 중구, 북구, 남구, 동구, 수성구, 달서구 교육구청별로 학생수에 비례하여 추출하였고,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다단계 집단별 무작위 표집을 하였다.

조사방법은 설문지법으로 아동을 통해 배부한 다음 2일 후에 회수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질문지는 626부 배부하여 545부가 회수되었으며 내용기재가 부실한 것을 제외한 423부를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3. 측정 도구

(1) 자아긍정척도(Positive Self Scale:PSS)

자아긍정척도(PSS)는 정원식(1968)의 표준화된 자아개념검사 중 자아긍정척도로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 체계로서 신체적자아 6문항, 도덕적자아 6문항, 성격적자아 6문항, 가정적자아 6문항, 사회적자아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대상자는 각 문항을 읽고 그 문항이 일상생활에서 자기 자신과 관련된 정도에 따라 "항상 그렇다"라고 생각되면 5에, "대체로 그렇다"라고 생각되면 4에, "그렇다"와 "아니다"가 반반이면 3에, "대체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되면 2에,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되면 1에 0표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자아개념검사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검사로서 개인의 전체적인 자아존중감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이 점수가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자기를 가치있고 보람있는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을 갖고 행동한다. 이 점수가 낮으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며 그의 행동도 불안정하고 소극적이 된다.

- 1) 신체적 자아(Physical Self Score:PSS)
자신의 신체에 대한 견해, 건강상태, 신체적 외모, 재능 및 성격 매력 등을 나타내고 있다.
- 2) 도덕적 자아(Moral Ethical Self Score:MES)
개인의 도덕적 가치, 자기자신의 인간됨에 대한 선악 의식 등, 자기자신의 윤리적 면을 본인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 3) 성격적 자아(Personal Self Score:PSS)
개인의 자기존중감, 한 사람으로서의 자족감, 자기 성격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의미한다.
- 4) 가정적 자아(Family Self Score:FSS)
한 가정의 일원으로서 그 개인이 얼마나 평온한 마음으로 있으며 자기의 인간적인 가치가 얼마나 인정되고 있으며, 얼마나 원만한 가정생활을 누리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 5) 사회적 자아(Social Self Score:SSS)
타인과의 인간관계에서 자신이 보는 관념체제로서 대인관계에서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소외되고 불행한 인간관계에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2) 가정생활 만족도

Hayes와 Stinnett(1971), Burr(1979), Lewis와 Spa-

nier(1979), 임정빈(1988), 이종숙(1989)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남편과의 관계 만족, 경제적 문제 만족, 시대과의 관계 만족, 생활표준일치 만족, 의사소통 만족, 가사노동 만족, 자녀와의 관계 만족 등 총 22 문항으로 작성하였으며, 요인분석 결과 다섯가지요인 즉 남편에 대한 만족, 경제적 만족, 시대에 대한 만족, 가사노동 만족, 자녀에 대한 만족이 채택되어 총 16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만족정도는 Likert 5점 척도방식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생활에 만족함을 나타낸다.

요인분석 결과는 <부표 1>과 같으며 신뢰도 계수는 내적일치도 방법을 사용한 결과 Cronbach $\alpha=0.8534$ 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은 SPSS PC*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요인분석,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 및 경로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N	%
부인연령	30 - 33세	85	20.0
	34 - 36세	123	29.1
	37 - 39세	136	32.2
	40 - 49세	79	18.7
결혼년수	8 - 10년	109	25.8
	11 - 12년	107	25.2
	13 - 14년	95	22.5
	15 - 22년	112	26.5
자녀수	2명 이하	310	73.3
	3명 이상	113	26.7
부인학력	국졸	29	6.9
	중졸	88	20.8
	고졸	199	47.0
	전문대졸	26	6.1
남편학력	대졸	81	19.2
	중졸	20	4.7
	고졸	40	9.5
	전문대졸	167	39.5
남편직업	전문대졸	15	3.5
	대학원이상	142	33.6
	대학원이상	39	9.2
	대학원이상	39	9.2
월평균소득	60만원 이하	47	11.1
	61 - 90만원	91	21.5
	91 - 120만원	124	29.4
	121 - 150만원	70	16.5
	151 - 180만원	41	9.7
	180만원 이상	50	11.8

변인	구분	N	%
남편연령	30 - 36세	87	20.6
	37 - 39세	115	27.2
	40 - 42세	115	27.2
	43 - 49세	106	25.0
종생활년수	없음	136	32.2
	5년 이하	87	20.6
	6 - 10년	94	22.2
	11 - 15년	40	9.5
교수	16년 이상	66	15.5
	없다	299	70.7
부직유업	있다	124	29.3
	없다	124	29.3
남편직업	무직	8	1.9
	생산 및 노무직	59	13.9
	판매및서비스직	114	27.0
	사무직	98	23.2
남편업종	정관리직	102	24.1
	전문기술직	42	9.9
남편직업만족	불만족	58	13.7
	그저그렇다	177	41.9
	만족	188	44.4
부건강상태	약한편	71	16.8
	보통	97	22.9
	건강한편	255	60.3
계		423	100

1. 도시 주부의 자아 긍정감과 가정생활 만족의 일반적 경향

자아긍정감의 일반적 경향은 <표 2>와 같다.

총 자아긍정점수의 백분위 환산점이 68.9점으로 나타났다. 도덕적 자아점수(76.3점)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가정적 자아점수(73.1점)이었고 사회적 자아점수(62.0점)가 가장 낮았다. 이는 조성욱(1987)의 결과와 일치한다.

가정적 자아점수가 높다는 것은 자기의 인간적 가치가 인정되고 있으며 자기 가정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있으며 가정에서의 불화나 갈등이 해소된 사람으로 볼 수 있다(정원식:1968)

가정생활 만족도의 일반적 경향은 <표 3>과 같다.

본 조사 대상 주부들의 만족 점수가 백분위 환산점으로 69.2점으로 나타나 가정생활에 약간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녀에 대한 만족이 가장 높았으며(69.1점), 그 다음이 남편에 대한 만족(67.4점)였으며, 가사노동 만족이 가장 낮았다.(59.1점)

2. 가족환경 변인이 자아긍정감,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1) 가족환경변인이 자아긍정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가족환경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자아긍정감의 각 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는 <부표 2>와 같으며 상관관계가 높지 않으므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가족환경변인이 자아긍정감의 각 요인을 설명하는 정도는 3%에서 23%수준으로 나타나 설명력이 약한 편이다.

신체적 자아긍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건강상태와 부인화력, 부인직업유무로 나타났다. 즉 건강할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을 갖지 않을수록 신체적 자아긍정감이 높았고 신체적 자아긍정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의 신체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격적 자아긍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남편 직업만족도 였다. 즉 남편이 직업에 만족할수록 주부의 성격적 자아긍정감이 높았다.

성격적 자아긍정감이 높은 사람은 안정되고 바람직한 성격특징을 소유하고 있다고 본다.

가정적 자아긍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건강상태와 남편직업만족도였다. 즉 건강할수록, 남편이

<표 2> 자아 긍정감의 일반적 경향

	평균(백분위환산점)	표준편차	점수범위
신체적 자아	18.73(62.43)	3.53	6 - 30
도덕적 자아	22.91(76.33)	2.89	6 - 30
성격적 자아	21.22(70.73)	3.36	6 - 30
가정적 자아	21.92(73.07)	3.36	6 - 30
사회적 자아	18.60(62.00)	3.02	6 - 30
총자아긍정점수	103.37(68.91)	10.65	30 - 150

<표 3> 가정생활 만족도의 일반적 경향

	평균(백분위환산점)	표준편차	점수범위
남편에 대한 만족	13.47(67.35)	2.62	4 - 20
경제적 만족	12.32(61.60)	2.68	4 - 20
시댁관계 만족	9.55(63.67)	2.16	3 - 15
자녀에 대한 만족	10.37(69.13)	1.98	3 - 15
가사노동 만족	5.91(59.10)	1.51	2 - 10
전반적 만족	55.32(69.2)	8.09	16 - 80

〈표 4〉 가족환경 변인과 자아긍정감과 회귀분석

독립변인	회귀계수	β					
	종속변인	신체적 자아	도덕적 자아	성격적 자아	가정적 자아	사회적 자아	총자아 긍정
건강상태		.4260***	-.0753	.0741	.1926***	.0559	.2040***
부인직업		-.1010	-.0831	.0118	-.0545	.0098	-.0549
유무							
월평균		.0828*	.0927	.1045	.0676	.0259	.0466
소득							
남편직업		-.0768	.0428	.1851***	.1059*	.0690	.1039*
만족도							
부인학력		.1756**	.0827	.1091	.0460	.1512*	.1940**
남편학력		-.0304	.1086*	-.0269	.0771	.0644	.0486
회귀상수		12.9320	21.7669	16.90354	17.1734	16.2296	86.3584
Adjusted R ²		.2341	.0635	.0640	.0895	.0304	.1446
F		19.3821***	5.0903***	5.1246***	6.9243***	2.8861**	12.8619***

*p<.05 **p<.01 ***p<.001

직업에 만족할수록 주부의 자아긍정감이 높았다.

사회적 자아긍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인의 학력으로서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적 자아긍정감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자아긍정감이 높은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고 본다. 이는 조성욱(1987)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총 자아긍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건강상태, 부인학력, 남편직업만족도의 순서였으며 건강할수록, 부인학력이 높을수록, 남편이 직업에 만족할수록 총 자아긍정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자아개념은 사회계층에 따라 영향을 받고 연령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다는 정원식(1970)과 김영희(1980)의 견과 일치한다. 자아존중감은 부인의 직업유무와 상관이 없다는 이미선(1985)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나타낸다는 조성욱(198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2) 가족환경변인이 가정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가족환경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가정생활만족의 각 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가족환경변인이 가정생활만족의 각 요인을 설명하는 정도는 4%에서 24% 수준으로 나타났다.

남편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남편직업만족도, 건강상태, 월평균 소득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이 직업에 만족할수록, 주부 자신이 건강할수록,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주부들은 남편에 대하여 만족한다고 밝혀졌다. Scanzoni(1975)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계층의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은 부인과 남편의 호혜적 과정이라고 설명하였다. 남편이 직업에 만족할수록 가정생활에서도 너그름이나 여유를 보여 주어 주부도 그러한 남편에 대해 더 만족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경제적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월평균 소득, 남편직업만족도, 부인직업유무로 나타났다. 즉 월평균 소득이 많을수록, 남편이 직업에 만족할수록 경제적 만족이 높았으며, 주부 자신이 직업을 갖지 않을수록 경제적 만족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본 연구에서 주부가 직업을 갖는 경우 스스로 원하거나 자아실현이 목표가 아니라 대체로 경제적인 이유로 가

〈표 5〉 가족환경 변인과 가정생활 만족과의 회귀분석

독립변인	회귀변수 종속 변인	β					
		남편에 대한만족	경제적 만족	시대에 대한만족	자녀에 대한만족	가사노동 만족	전반적 만족
건강상태		.1467**	.0664	.0924	.1060*	.0897	.1469**
부인직업유무		-.0372	-.0932*	.0485	-.0112	-.0057	-.0349
월평균 소득		.1359*	.2858***	.0732	.0743	.0065	.1858***
남편 직업 만족도		.1570**	.2425***	.1489**	.2002***	.1244*	.2531***
부인 학력		-.0629	.0631	-.0040	.0129	.0631	.0189
남편 학력		.1243	.0787	.0485	.1477*	.0108	.1308*
회귀상수		9.6227	7.7326	6.7925	7.5619	4.6329	38.9843
Adjusted R ²		.0991	.2358	.0408	.0918	.0167	.2004
F		7.6315***	19.6033**	3.5613**	7.0912***	2.0248*	16.1049***

*p<.05 **p<.01 ***p<.001

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취업을 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시대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남편 직업만족도로 나타났다. 즉 남편이 직업에 만족할수록 주부의 시대에 대한 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자녀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남편 직업만족도, 남편학력, 건강상태 순서였다. 즉 남편이 직업에 만족할수록, 남편학력이 높을수록, 건강할수록 주부의 자녀에 대한 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가사노동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남편 직업만족도였다. 즉 남편이 직업에 만족할수록 주부의 가사노동만족이 커짐을 알 수 있다.

가정생활 전반적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편 직업만족도, 월평균 소득, 건강상태의 순서였으며 남편이 직업에 만족할수록, 월평균 소득이 많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가정생활만족이 높아짐이 밝혀졌다.

월평균 소득이 가정생활만족에 중요한 변인이 된 것은 Hayes & Stinnett(1971), Hafstrom & Dunsing(1973), Campbell(1976), 임정빈(1988), 이종숙(1989), 조미환(1990) 등과 일치한다. 또한 Rescher(1972)가 가정생활의 만족을 높이는 것은 물질적, 사회적 환경의 질, 지위, 존경, 직무만족 등이라고 설명한 것과 일치한다.

Lewis(1979)는 교환이론에서 역할기능에 유효한

자원이 많을수록 결혼의 질이 높아져서 만족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가정생활의 유효한 자원을 직업에 대한 만족, 소득, 건강 등이라고 한다면 본 연구의 결과도 교환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3. 자아긍정감과 가정생활 만족도의 관계

자아긍정감의 각 요인이 가정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자아긍정감 각 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가정생활만족의 각 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자아긍정감 하위 영역간의 상관관계는 〈부표 3〉과 같으며 상관관계가 높지 않으므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자아긍정감의 각 요인이 가정생활만족의 각 요인을 설명하는 정도는 5%에서 28%였다.

남편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정적 자아와 도덕적 자아였다. 즉, 주부의 가정적 자아긍정감과 도덕적 자아긍정감이 높을수록 주부의 남편에 대한 만족이 높음이 밝혀졌다.

경제적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신체적 자아, 성격적 자아, 도덕적 자아였다. 즉 신체적 자아긍정감, 성격적, 도덕적 자아긍정감이 높을수록 경제적 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표 6〉 자아긍정감과 가정생활 만족과의 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남편에 대한만족	경제적 만족	시대에 대한만족	자녀에 대한만족	가사노동 만족	전반적 만족
신체적 자아	.0598	.1743***	.07486	.0822	.0752	.1324**
도덕적 자아	.0939*	.0985*	-.0156	.1078*	.0170	.1105
성격적 자아	.0429	.1588**	-.0188	.1027	.0367	.0894
가정적 자아	.4865***	.0686	.3465***	.1652**	.1867***	.3835***
사회적 자아	-.0804	.0134	-.0055	.0228	.0082	-.0131
회귀상수	2.9078	3.6348	4.2451	4.1187	4.6329	18.3626
Adjusted R ²	.2836	.1149	.1235	.1021	.1672	.2786
F	34.3273***	11.9281***	12.8629***	10.5694***	5.6339***	33.5090***

시대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정적 자아였다. 즉, 가정적 자아긍정감이 높을수록 시대에 대한 만족도 커짐이 밝혀졌다.

자녀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가정적 자아와 도덕적 자아로 나타났다. 즉 가정적 자아와 도덕적 자아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만족이 높아짐을 알았다.

가사노동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정적 자아였다. 주부의 가정적 자아긍정감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에도 만족하는 것이 밝혀졌다. 주부가 가정의 일원으로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긍지를 가질때 가정에서의 가사노동에도 만족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이미선(1985)의 연구와 일치한다.

가정생활의 전반적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정적 자아($\beta=.3835$)와 신체적 자아($\beta=.1325$), 도덕적 자아($\beta=.1106$)의 순서였다.

주부의 가정적 자아긍정감이 높다는 것은 주부가 가정의 일원으로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 가정에 대하여 긍지를 가지고 있으며 가정에서의 불화나 갈등이 해소된 상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가정생활에 임할 때 남편에 대한 만족과 시대에 대한 만족, 자녀에 대한 만족, 가사노동에 대한 만족-및-전반적인 가정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상호적이라기보다는 자기내부적인 것이라고 한 Glasser(1966)의 보고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신체적 자아긍정감이 높다는 것은 자신의 신체상

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며 경제적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주부가 자신의 신체적 상황이나 자신의 몸매나 외모에 더욱 더 신경을 쓴 결과라고도 사료된다. 도덕적 자아긍정감이 높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윤리적 면에 있어서 주부 스스로 높다는 긍지를 가졌음을 의미하며 남편이나 자녀에 대하여 스스로 관대해지려고 노력한 결과로 남편이나 자녀에 대한 만족이 높아진다고 사료된다.

특히 사회적 자아긍정감이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가정생활만족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Lewis(1979)의 연구와는 상반된다. Lewis(1979)는 친족관계, 지역사회활동 등 유대관계가 좋은 부부는 대체로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으며 사회성이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가정생활만족도가 높다고 보고 하였다.

가정생활의 각 영역 및 전반적 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변인은 가정적 자아였으며 주부의 가정적 자아긍정감이 높을수록 가정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함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조성옥(1987)과 일치한다. 또한, 자아개념이 높은 사람이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한 Hayes와 Stinnett(1971)의 보고와도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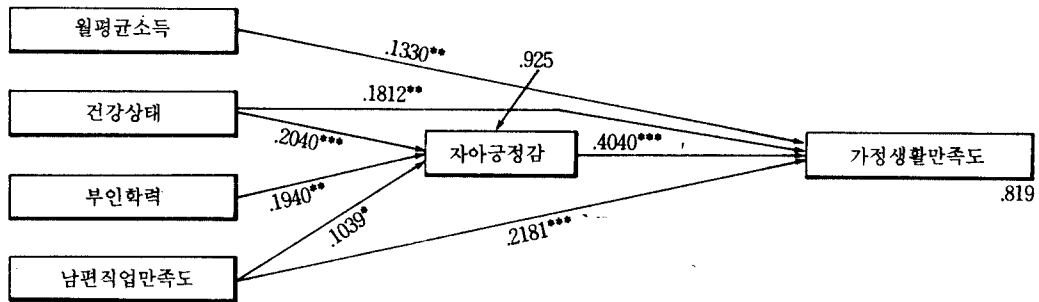
4. 연구모형의 검증

가정생활만족도와 관련변인과의 인과관계를 검증

〈표 7〉 자아긍정감 및 가정생활만족도의 회귀계수

종속 변수	독립 변수	회귀계수(β)	Adjusted R ²	F
가정생활만족도	자 아 긍 정 감	.4040***	.3281	35.2574***
	남편직업만족도	.2181***		
	월 평균 소득	.1330**		
	건 강 상 태	.1812**		
자 아 긍 정 감	건 강 상 태	.2040***	.1446	12.8619***
	부 인 학 력	.1940**		
	남편직업만족도	.1039*		

*p<.05 **p<.01 ***p<.001



〈그림 2〉 가정생활 만족에 대한 경로모형

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에 따라 최종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회귀계수는 〈표 7〉과 같고, 이를 인과모형으로 하여 경로를 도식화하였다. 〈그림 2〉

모든 독립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부표 4〉와 같으며 상관관계가 높지 않으므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각 변인간의 경로 계수는 β 계수를 사용하였고, 0.05수준에서 유의미한 변인만을 인과모형으로 나타내었다.

가족환경변인 중 월평균 소득, 남편직업만족도는 가정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건강상태와 부인학력, 남편직업만족도는 자아긍정감을 통하여 가정생활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주부의 학력은 선행연구(Spurrier 1973, 이정우 1980, 이기영 1984, 임정빈 1988, 이종숙 1989, 조미환 1990)에서는 가정생활만족도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만 보고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부의 학력은 자

아긍정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가정생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아긍정감은 가정생활만족도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beta=0.4040$)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가족환경변인과 가정생활만족도를 연결해 주는 중요한 매개변수임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보여준 가족환경변인 중 가장 중요한 변인이라고 보고된(Hafstorm 1973, Campell 1976, Mammen 1986, 조미환 1991) 월평균 소득($\beta=.1330$)보다 남편의 직업만족도가 더 큰 영향($\beta.2181$)을 미치며 특히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개인 내적 변인 중 심리적 요인인 자아긍정감으로 나타나($\beta=.4040$) 임정빈(1990), Jerics(1979)의 사회 인구조적 변인보다 심리적 변인이 가정생활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다음으로 가정생활만족도와 관련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인과관계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하여 총 인과효과를 살펴보았

다.<표 8>

월평균 소득은 가정생활만족에 .133의 직접효과만을 미쳤다.

건강상태는 .181의 직접효과와 자아긍정감을 경유한 .082의 간접효과를 더한 총 .263의 인과효과를 미쳤으며 부인학력은 자아긍정감을 경유한 .078의 간접효과를 미쳤으며 남편직업만족도는 .218의 직접효과와 자아긍정감을 경유한 .042의 간접효과를 더한 총 .260의 인과효과를 미쳤으며, 자아긍정감은 .404의 직접효과를 미쳤다.

<표 8> 가정생활만족 관련변인의 인과효과

독립변수	총인과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월 평균 소득	.133	.133	
건강 상태	.263	.181	.082
부인 학력	.078		.078
남편직업만족도	.260	.218	.042
자아 긍정 감	.404	.404	

최종 회귀분석에서 나온 결정계수(R^2)가 .3281로서 또 다른 요인들의 영향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경로분석에서 사용한 가족환경변인, 자아긍정감 외에 자기노출 및 인격적 변인 또는 부부상호변인으로 의사결정유형이나 의사소통양식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영향요인을 연구하여 실증해 볼 필요도 있다고 보겠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30, 40대 도시 주부의 가정생활 만족도에 가족환경변인과 자아긍정감이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고 주부의 가정생활만족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변인을 재인식함으로써 가정생활의 만족 및 사회복지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로부터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족환경변인 중 자아긍정감에 유의한 영향을 준 변인은 건강상태, 부인학력, 남편직업만족도 순서였다.
2. 가족환경변인 중 가정생활의 전반적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인은 남편직업만족도, 월평균 소

득, 건강상태의 순서였다.

3. 자아긍정감의 하위영역 중 가정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정적 자아, 신체적 자아의 순서였다.

4. 가정생활만족의 경로모형에서 자아긍정감은 가정생활만족에 가장 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자아긍정감은 본 연구에서 주부의 가정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 밝혀졌다.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가족환경변인 중에서는 가정생활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변인과 자아긍정감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준 변인은 건강상태, 부인학력, 월평균 소득, 남편직업만족도였고 개인 내적 변인으로 자아긍정감이 가정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었으므로 첫째, 자아긍정감을 높이는 데 힘써야겠다. 그 방법으로 Felker(1977)는 우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아동기부터 자신을 칭찬하고 타인을 칭찬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주장한다. 자아긍정감은 아동기에 많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특히 가정적 자아는 가정생활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므로 자신의 가정에 긍지를 가지고 가족이 화합하여 원만한 가정생활을 누리도록 해야겠다. 나아가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앞으로의 가정생활만족을 위해서도 가정에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도록 주부들이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겠다. 또한 타인을 긍정적으로 보고 봉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을 사회복지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을 권장하고 싶다.

둘째, 건강상태를 잘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바람직한 식습관이 권장되며 아울러 사회체육을 활성화하여 주부들이 부담없이 알맞은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 체력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셋째, 주부의 학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의 차원에서 평생교육기관의 설립을 권장하고자 한다. 입학시험은 없게 하고 교육비는 부담없이 하여 누구나 교육받고자 하는 주부에게는 언제든지 배울 수 있도록 힘이 바람직하겠다.

넷째, 월평균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주부의 취업 등으로 가계의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주부의 시간제 취업의 문을 정부나 사회 차원에서 열어 주고 아울러 탁아시설이나 보육시설의 질적, 양적 향상을 기해야 하겠다. 또한 주부 스스로도 합리적인 소비생활로 가족 모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규모있는 경제생활을 도모해야겠다.

다섯째, 남편직업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남편으로 하여금 직업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갖도록 격려하며 사회적인 차원에서 정당한 보수를 주고 사회전반적인 가치관을 건전하게 하며 불로소득의 근원을 차단하여 건전한 직업관을 고취시켜야 할 것이다.

〈부표 1〉 가정생활만족도에 대한 요인분석

번호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FACTOR 5	h ²
1	.78241	.11639	.12763	.08827	.07149	.65491
4	.26488	.72509	.12649	.06666	-.06124	.62011
5	.07231	.75169	.03984	.15903	.12217	.61207
6	.13790	.79188	.10548	.03890	-.01381	.65892
7	.07571	.15830	.79102	.08685	.08138	.67067
8	.17446	.07678	.80909	.11338	.12052	.71834
9	.22105	.06371	.81941	.15767	.04016	.75083
10	.66574	.10058	.28012	.12358	.10492	.55808
13	.17160	.03093	.05653	.19118	.81279	.73078
14	.18268	.14742	.15560	.08020	.80510	.73393
15	.05179	.63294	.08188	.08772	.39513	.57382
16	.09900	.12515	.09099	.79851	.10500	.68238
17	.18421	.08462	.14257	.71914	.22237	.62803
18	.16431	.08650	.11749	.76089	.00784	.62730
20	.77107	.13250	.04800	.14301	.15338	.65838
21	.76086	.18740	.12514	.18563	.13696	.68290
eigen V	5.04625	1.62975	1.43078	1.31720	1.3748	
pct of var	31.5	10.2	8.9	8.2	7.1	
cum pct	31.5	41.7	50.7	58.9	66.0	

〈부표 2〉 가족환경변인별 상관관계

	부인 학력	월평균 소득	부인 직업유무	남편 학력	남편직업 만족도	건강 상태
부인학력	1					
월평균소득	.2507**	1				
부인직업유무	-.1640**	.1010	1			
남편학력	.4830**	.3027**	-.2190	1		
남편직업만족도	.1907**	.1397**	-.0975	.2230**	1	
건강상태	.1394*	.1000	-.0502	.0733	.1717**	1

〈부표 3〉 자아긍정감 하위 영역별 상관관계

	신체적 자아	도덕적 자아	성격적 자아	가정적 자아	사회적 자아
신체적 자아	1.0000				
도덕적 자아	.1032	1.0000			
성격적 자아	.2837**	.3405**	1.0000		
가정적 자아	.3157**	.3286**	.4600**	1.0000	
사회적 자아	.1968**	.1234*	.3094**	.4147**	1.0000

〈부표 4〉 최종회귀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

	자 아 긍 정 감	월 평 균 소 득	부인직업 유 무	남 편 학 력	남편직업 만 족 도	건 강 상 태	부 인 학 력
자 아 긍 정 감	1.0000						
월 평 균 소 득	.1391*	1.0000					
부인직업유무	-.1075	.1016	1.0000				
남 편 학 력	.1679**	.3027**	-.2173**	1.0000			
남편직업만족도	.2008**	.1400*	-.0913	.2212**	1.0000		
건 강 상 태	.2594**	.1066	-.0200	.0571	.1773**	1.0000	
부 인 학 력	.2947**	.2507**	-.1641**	.4830**	.1910**	.1187*	1.0000

【참고문헌】

- 김명자, 노인외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0(3), 1982, 45-54.
- 김명자, 중년기 연구, 서울:교문사, 1989.
- 김영희, 가족환경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 1980.
- 김윤경, 가정생활의 의사결정 유형과 관련변인과의 관계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48.
- 김은숙, 가족생활 주기에 따른 의사 소통과 결혼 만족에 관한 연구, 상명여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박찬미, 도시 주부의 결혼 만족도와 이론 실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박태은, 성-역할 태도와 결혼 만족도 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 1983, 142.
- 이기영, 주부가 인지한 생활의 질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3), 1984, 111-127.
- 이미선, 이정우, 주부의 자아존중감과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 1985.
- 이미숙, 자녀의 성, 연령, 수와 주부의 성역할 태도가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 1985, 151-170.
- 이옥진, 부부의 결혼 만족도에 관련된 가족환경 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 이종숙, 확대기 가정의 가정생활 만족,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이정우, 가정관리 성취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0.
- 임정빈, 가치성향, 의사결정 양식 및 가정생활 만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 임정빈, 농촌 가정생활 만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4), 1990, 136.
- 정원식, 인간과 교육, 신교육학 전서 3, 서울:배영사, 1970.
- 정원식, 자아개념 검사, 검사법 요강, 서울대학교 학생지도 연구소, 코리아테스팅 센터, 1968.
- 정혜정,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결혼 만족도에

-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5.
- 19) 조미환, 도시 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유형과 가정 생활만족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0.
 - 20) 조성옥, 신효석, 결혼 만족도와 자아개념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5(1), 1987, 177-200.
 - 21) 최규련, 부부의 성역할 태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1), 대한가정학회지, 22(2), 1984, 91-102.
 - 22) Andrews, Frank M., and Withey, S.B., Developing measures of perceived life quality, Results from several national survey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 1974, 1-26.
 - 23) Ball, R.E., Parental role satisfaction of black mothers i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 of Sociology of the Family, 14, 1984, 33-46.
 - 24) Bharadwaj, Lakshmi, and Wilkening, E., The prediction of perceived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4, 1977, 421-439.
 - 25) Burr, W.R., Satisfaction with Various Aspects of Marriage over the Life Cycle:A Random Middle Class Sample,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32 (1), 1970, 29-37.
 - 26) Campbell, A., Converse, P.E., & Rodgers, W.L., The Quality of American Life: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 New York:Russel Sage Foundation, 1976.
 - 27) Combs, A.W., & Snygg, D., Individual Behavior: A Perceptual Approach to Behavior, New York: Harper, 1959.
 - 28) Deacon, R.E., Firebaugh, F.M., Family Resource Management, Allyn & Bacon, Inc, Boston, 1981, 20-24,
 - 29) Felker, D.W., Building Positive Self-Concepts, 교육학연구<16>, 문음사 1977.
 - 30) Glasser, P.H., and Glasser, L., Adeguste family functioning, Family Structure Dynamics and therapy, Psychiatric Research Report.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66.
 - 31) Glenn, N. and Weaver, C., A note on family situation and global happiness, Social Forces, 57, 1979, 960-967.
 - 32) Glenn, N. and McLanahan, S., Children and marital happiness:A further specification of the relationship, J. of Marriage and Family, 44, 1982, 63-72.
 - 33) Goldstein, D., Rosenbaum, A., An Evaluation of the Self-Esteem of Maritally Violent Men, Family Relations, Vol. 34, 1985.
 - 34) Hafstrom, Jeanne L.(ed), Quality of life Research, Illinois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1986. 임정빈 (1990)에 재인용.
 - 35) Hafstrom, J.L. and Dunsing, M.M., Level of Living:Factors Influencing the Homemaker's Satisfactio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2, 1973, 119-132.
 - 36) Hall, C.S., & Lindzey, G., Theories of personality, New York: John Willey & Sons., 1970, 119-128.
 - 37) Hayes, M.P. and Stinett, N.,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Husbands and Wives, J. of Home Economic, 63(9), 1971, 669-674.
 - 38) Jackson, J.S., Bacon, J. and Peterson, J., Life satisfaction among black urban elderly, J.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8, 1978, 169-179.
 - 39) Jeries, N. Marital Satisfaction As Perceived by wiv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7(4), 1979, 226-233.
 - 40) Lewis, P.A., Spanier, G.B., Theorizing about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Marriage, in W.R. Burr, R. Hill, F.I. Ney & E.L. Reiss, eds, Contemporary Theores about the Family, 1, New York:The Free Press, 1979, 268-293.
 - 41) Rescher, N., Welfare:The Social Issues in Philosophical Perspective,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72, 62-64.
 - 42) Rogers, C.R., Client-Centered Therapy,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51.
 - 43) Scanzoni, J.H. The Black Family in Modern

- Society: Patterns of Stability and Secur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5.
- 44) Schafer, R.B., Braito, R., Self-Concept and Role Performance Evaluation Among Marriage Partn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1(4), 1979.
- 45) Sears, R.R., Relation of Early Socialization Experiences to Self-Concepts and Gender-Role in Middl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41(2), 1970, 267-290.
- 46) Spurrier, P.J. Home Management Satisfaction as Related to Knowledge of A Selected Group of Homemakers,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Texas Woman's University 1973.